

2024. 2. 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2133-8547
투자유치팀장	김윤정	2133-4760
대 표	구분희	02-6361-4120
투자전략팀장	문경일	02-6361-4121

인베스트서울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인베스트서울' 출범 2주년...공격적 투자유치로 역대 2위 서울시 FDI 견인

- '23년 베스타스 아태본부 유치, 중동 네트워크 확장 등 서울 FDI 147억\$..글로벌 투자처 매력↑
- 올해는 콘텐츠, 게임 등 창조·전략산업 분야 투자유치 집중 위해 'Creative Core100' 신설
- 핀테크, AI 등 市 전략산업 중심 올인원패키지 확대로 산업클러스터 지원 강화
- 인베스트서울, "올해도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자본 및 기업 유치 성과 낼 것"

이달로 출범 2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금액에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3년 FDI 금액은 147억 달러로, 출범 당시인 2022년 107.3억 달러 대비 37%(+39.7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보험업(86.5억 달러, +43.1억 달러)과 신규 투자(56억 달러, +24억 달러)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처로서 서울이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서울 FDI 역대 1위 : '21년 180억 달러

< 인베스트서울 2023년 성과 >

- 지난해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엔데믹 이후 해외 현지로 직접 나가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는 등 ‘투자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들과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 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베스타스사의 아태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유치('23.10.24)하는 데 성공했다.

- 또한 서울 창업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확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10월 아부 다비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인 Hub71(허브71, '23.10월),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금융허브인 DIFC(두바이국제금융센터, '23.11월) 등 중동지역 주요 기관과 연이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스타트업 공동 육성 등 긴밀한 투자협력을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중동 대표 IT 스타트업 박람회인 Expand North Star에 참여 ('23.10월, 두바이)하여 서울 유망 기업 10여 개를 UAE 대표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이 중 니어스랩(AI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기업)은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글로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등 중동지역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 이와 함께 금융 중심 도시인 런던('23.3월)·뉴욕('23.9월),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턴('23.6월) 등 해외 경제중심지에서 서울의 투자 경쟁력과 유망 기업을 소개하는 투자유치설명회(IR)를 개최하였다.
- 특히 그간 서울에서 개최해오던 서울투자자포럼(SIF, Seoul Investors Forum)을 뉴욕 현지에서 개최하였고, 이 행사에 참여한 퓨리오사AI(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는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서울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였다.

< 인베스트서울의 2024년 계획 >

- 2024년 올해,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 창조산업 등 서울시가 육성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와 ▲ 핀테크, 바이오, AI 등 서울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 해외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서울 유망기업 명단인 Core100에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졸업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서울시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유기적으로 지원한다.
- 특히, K-콘텐츠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콘텐츠, 게임 등 창조산업 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유망 스타트업 'Core100' 이외에도 Creative Core100을 신설하고, 50개의 창조기업을 별도로 선발해 특별 관리한다.
-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DIFC, 코트라 현지무역관 등과 협력한 해외 진출

지원 ▲콘텐츠 전문 투자자들과 맞춤형 매칭 등 해외 자본유치 프로그램 운영한다.

-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북미지역 테크 유니콘의 ‘서울’로의 유치에도 공을 들인다.
- 우선 그간 기업 유치 활동과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구축된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홍콩,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 매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 높은 기술력을 보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테크 유니콘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양재(인공지능), 홍릉(바이오) 등 서울의 산업 클러스터를 두텁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조, 바이오, 핀테크 등 시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게는 1억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의 경우에도 ‘FDI 올인원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 ‘FDI 올인원 패키지’는 서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컨설팅 비용, 법인登記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의 특화 사업 중 하나이다.
- '24년 인베스트서울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도시 ‘서

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자 결정에서부터 투자 추진, 안정적 서울 정착까지의 투자 유치 쏠과정에 대한 원스톱 토탈케어 서비스를 강화하여 서울로의 FDI 유입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이 글로벌 TOP5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기구”라며, “ ’24년 인베스트서울의 역량을 강화해 서울의 투자유치 세일즈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베스트 서울 출범 2주년 관련 사진.



런던 IR('23.3월)



서울시-베스타스사 MOU 체결('23.3월)



뉴욕 IR('23.9월, 서울투자자포럼)



서울시-DIFC MOU 체결('23.10월)



서울시장-DIFC 총회장 면담('23.10월)



중동 IT 박람회 참가('23.10월, EXPAND NORTH STAR)